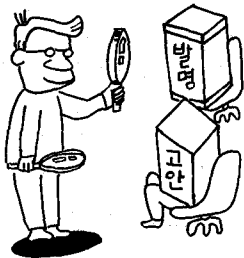


아닌거 아닌의 불협화음의 거품이 거품이거



우 리나라 발명인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아이디어 정리 후 개발대상 테마선정 및 관련기술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며, 발명품 개발 및 시작품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발명에 따른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특허출원의 목적은 무엇이고, 발명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아이디어 창출 방법

이 조사대상은 개인 및 법인(기업)의 7백47개 발명품이었다. 이들 발명품중 57.4%가 업무중에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발명은 주로 발명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 다음으로는 관련 상품을 통하여가 40.4%, 문헌속에서가 27.6%로 나타나 발명과 관련된 상품 및 문헌이 좋은 발명아이디어 창출의 근원이 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상생활중 갑자기 떠오른 경우도 24.9%를 차지함으로써 누구든지 평소에 발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발명아이디어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다른 연구 도중에가 17.0%, 다른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고가 9.2%,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가 5.5%, 전시회 및 박람회 관람

중이 5.0%,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을 통하여가 2.9%의 순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경우 일상생활중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41.0%로 가장 많고, 업무중이 33.6%, 관련 상품을 통해서가 33.2%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의 경우는 업무중에 88.3%로 가장 많고, 관련 상품을 통해서가 49.8%, 문헌속에서가 45.8%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 통계비율이 1백%를 초과하는 것은 2개 응답의 경우 중복처리했기 때문임)

2. 아이디어 정리후 개발대상 테마선정 및 관련기술 문제점 해결

이 조사대상은 개인 및 법인의 7백32개 발명품이었다.

이들 발명품중 60.7%가 발명인 혼자서 한것으로 나타나, 발명은 대부분 혼자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 다음으로는 동료 발명인 및 사내 동료와 함께가 27.6%, 외부기관 또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로가 6.7%,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가 5.1%순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경우 82.5%가 발명인 혼자서 개발대상 테마 및 관련기술 문제점 해결을 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는 동료발명인(사내 동료)와 함께가 57.9%인 것으로

밝혀졌다.

3. 발명품 개발 및 시작품 제작

이 조사대상은 개인 및 법인의 6백33개 발명품이었다.

이들 발명품중 52.6%가 발명인 혼자서 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다음으로는 외부기관 또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로가 7.7%,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가 5.8%의 순으로 밝혀졌다.

4. 발명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

(1) 소용기간

발명연구단계별 소요기간은 아이디어 정리 후 개발대상 테마의 결정 및 관련기술 문제점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10.6개월, 발명품 개발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7.1개월로 나타나 아이디어의 창출에서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명 1건당 17.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경우 21.7개월인데 비해 법인은 12.6개월로 밝혀졌다.

(2) 소요비용

발명 1건당 소요된 비용은 평균 2천4백만원 정도로 밝혀졌으며, 권리별로는 실용신안보다 특허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

해보면, 개인의 경우 1천8백만원이 소요된데 비해 법인은 3천3백만원이 소요돼, 법인발명이 개인발명에 비해 1.8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요비용별로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가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건비가 23.1%, 시작품 제작비가 18.2%, 시약 및 재료비가 11.2%, 잡비가 5.8%, 기타 4.1%의 순으로 밝혀졌다.

5. 특허출원 목적

이 조사대상은 개인 및 법인의 7백81개 발명품이었다.

이들 발명품중 66.7%가 발명의 기업화 및 독점 권리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발명의 권리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가 19.7%, 최종기술개발의 전단계로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5.9%, 실시료를 받기 위해서가 3.5%, 출원실적을 높이기 위해서가 0.6% 순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경우 73.3%가 기업화를 위해 독점권을 얻기 위한 것인 반면 다른 사람의 비슷한 발명의 권리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은 10.7%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다른 기업의 비슷한 발명의 권리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3

2.0%나 되었다. 이는 개인발명인보다 기업의 경우가 방어 목적의 출원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조사대상이 개인발명인에게 지금까지의 발명건수 및 출원건수를 설문한 결과, 응답한 4백2명의 발명인이 3천17건의 발명을 하여 1명의 발명인이 평균 7.5건의 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9.4%가 출원되고 나머지는 미출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발명인 1인당 평균 발명건수가 7.5건으로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규 발명의 경우 발명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6. 발명시 애로사항

7백81개 조사대상 발명품중 25.3%가 자금부족을 꼽았고,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렵다가 18.3%,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확보가 어렵다가 15.6%, 정부지원제도가 미흡하다가 14.6% 순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경우 연구비 부족과 정부지원제도 미흡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명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발명시 애로사항 우선 순위에 있어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밝혀졌다. (♣)